

## [QT 세미나]

### 적용할 때는 “3P”를 기억하라

이상규 목사 / 페이지수:2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한다. 양은 그 시력이 거의 근시에 가깝아서 코 앞에 있는 풀이나 볼 줄 안다. 그러므로 스스로는 ‘푸른 초장’이나 ‘실만한 물가’를 간절히 소원 할지라도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만다.

예수께서는 이런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으셨다.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마 9:36)

이런 의미에서 볼 때 QT란 양과 같이 5분 후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따르는 기술이다.

사실, 시력이 너무 약한 양으로서 상대적으로 청력이 발달되어 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청력이야말로 양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 기술을 익힐 것인가?

#### 1. 준비기도

목자되신 주께서는 지금 하늘보좌에 좌정하여 계시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이후 베드로의 사역이나 바울의 선교여행을 볼 때 저들의 하루하루는 하늘 보좌에 계신 주께서 보내신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따르는 삶이었다.

이와같이 오늘날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매일매일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는 QT본문을 통해 하늘 보좌에서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성령 안에서 듣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주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눅 9:23) 하셨다. 요컨대, 오늘 QT본문을 통해 하늘 보좌로부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고정관념, 희생에 대한 두려움 등을 내려놓고 ‘무어라 말씀하시든지 듣겠습니다’라는 자기 부인과 순종에의 결단을 확보하는 준비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오직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만 의지하는 태도이다.

#### 2. 본문 읽기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그의 오랜 QT경험을 통해 “본문을 수십 번 읽으면 본문에서 소리가 납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말씀하든지 듣겠다는 준비 기도를 한 후 본문을 3, 4번 세심히 읽고 있노라면 어느새 성령께서 마음에 특별히 와 닿게 하시는 말씀들을 주신다. 그것은 어떤 구절의 의미에 대한 강한 의문일 수도 있고 그 본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일 수도 있다.

이 때에 나의 마음에 와 닿은 이 ‘세미한 음성’(또 다른 표현으로 나의 마음 밭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 말씀을 지켜야(keep)한다. 마치 아기를 갖 잉태한

여인의 몸가짐과 같아야 한다.

“내 아들이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잠 4:20, 21)

### 3. 묵상

“사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커다란 변화들은 묵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성경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간단한 스냅사진이 아니고 오랜 시간의 노출이 필요한 사진이라는 것이다.”(하워드 핸드릭스)

묵상이란 아기가 잉태된 순간부터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기까지의 10개월과 같은 과정이다. 마음 밖에 심겨진 말씀의 씨가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고(keep)있는 과정이다. 본문읽기에서 파악된 내용을 성령 안에서 더욱 깊이 구체적으로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묵상이 잘되면 수개월된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본문의 내용이 마치 내게 하시는 음성처럼 전인격적으로 느껴지거나 또는 화면처럼 영상화(visualize)되기도 한다. 이때에 효과적인 묵상을 위하여 해석질문들(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을 던지며 주님과 대화식으로 본문을 묵상해 가는 것이 좋다.

또한 ‘주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와 ‘주님, 왜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주십니까?’라는 두 질문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찾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적인 질문이 된다.

### 4. 적용

#### 1) 적용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수 1:8)

이상의 말씀에서 보듯 묵상의 목적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함이다. 즉 삶 속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추상적인 적용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겠다”등의 적용은 너무 막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적용할 때에는 “3P”를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즉 적용은 개인적(personal)이고 구체적(Practical)이며 가능한(Possible)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적용기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도, 그리고 능력과 용기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전폭적으로 주께 맡겨드리는 기도이다.

\* 출처 : QT 신문